

목차

부록

공무원용 설문결과

■ 해외개발협력 사전 이해도

1) I. ODA(공적개발원조)용어와 서울시 ODA사업의 이해도(Q1_3)

- 'ODA(공적개발원조)용어와 서울시 ODA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모른다 57.7%, 보통이다 37.7%, 안다 7.5% 순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ODA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낮으며, ODA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인원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2) I. 코이카(KOICA)의 활동 이해도(Q1_4)

- '코이카(KOICA)의 해외봉사단, 중장기자문단, 퇴직전문가(NIP), 그리고 USAID, EDCF, AUSAID에 대해 들었거나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은 모른다가 39.6%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0.2%, 안다가 28.3%, 무응답이 1.9% 순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코이카의 활동에 대해 잘 모르거나 간단한 개념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응답자의 28.3%만이 코이카 활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업무에 대한 기본 이해도

3) II. 해당기술분야에 대한 조연(Q2_4)

- '물품구매, 공사감독, 시설물관리 등 해당기술분야에 대해 조연을 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률은 그렇다가 69.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2.6%, 아니다가 7.5% 순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7.5%를 제외한 모든 응답자는 자신의 해당기술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4) II. 총괄감독(PMC, PM), 보조할 수 있는가(Q2_5)

- 사업기획을 포함 사업전체에 대한 총괄감독(PMC, PM)를 하거나 보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응답률은 아니다가 6명(11.3%), 보통이다가 15명(28.3%), 그렇다가 32명(60.4%)으로 나타남
- '사업기획을 포함 사업전체에 대한 총괄감독(PMC, PM)를 하거나 보조를 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률은 그렇다가 60.4%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8.3%, 아니다가 11.3% 순으로 파악됨
- 분석결과, 응답자의 11.3%를 제외한 모든 응답자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높음

5) II. 보고서 등을 현지언어나 영어로 작성·보고할 수 있는가(Q2_6)

- 보고서 등을 현지언어나 영어로 작성·보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응답률은 아니다가 35명(66%), 보통이다가 11명(20.8%), 그렇다가 7명(13.2%)으로 나타남
- '보고서 등은 현지언어나 영어로 작성·보고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률은 아니다가 66%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0.8%, 그렇다가 13.2% 순으로 분석됨
- 분석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보고서를 현지언어나 영어로 작성·보고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13.2%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제도참여 의사

6) III. 3-1 개발도상국에서 일할 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나이대별 응답비율

- 개발도상국에서 일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는 30대는 50%가 1순위로 자녀교육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휴양·정착, 보수·승진, 국내 재취업, 언더·문화를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은 13%였음. 2순위로는 언어·문화에 대한 응답이 50%, 주거·질병과 보수·승진이 각각 25%로 나타남. 3순위로는 휴양·정착이 50%, 주거·교육과 국내 재취업이 각각 25%로 분석됨
- 40대는 1순위로 자녀교육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언어·문화가 31%, 보수·승진이 19%, 휴양·정착과 국내 재취업이 각각 6%로 나타남. 2순위로는 보수·승진이 33%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교육, 주거·질병, 국내 재취업, 언어·문화가 각각

17%로 파악됨. 3순위로는 언어·문화, 보수·승진이 3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자녀교육, 주거·질병, 국내 재취업, 언어·문화가 각각 17%로 분석됨

- 50대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순위로 국내재취업과 언어·문화가 27%, 휴양·정착과 보수·승진, 자녀교육이 각각 13%, 주거·질병이 7%로 나타남. 2순위로는 보수·승진과 국내재취업이 각각 50%씩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3순위로는 주거·질병과 휴양·정착이 각각 50%씩의 응답률을 보임
- 60대는 1순위로 국내재취업과 언어·문화가 2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주거·질병, 보수·승진이 각각 17%, 자녀교육이 8%로 나타남. 2순위로는 주거·질병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문화는 29%, 자녀교육과 국내 재취업은 14%로 파악됨. 3순위로는 휴양·정착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보수·승진이 29%, 자녀교육과 국내 재취업이 14%로 분석됨

7) III. 3_1_4. 1년 내 브릿지프로그램 참여 의사(보통을 그렇다에 포함)에 대한 나이대별 교차표

- 1년 내 브릿지프로그램에 대한 연령대별 참여의사로는 30대가 그렇다 62.5%, 아니다 37.5%, 40대는 그렇다 83.3%, 아니다 16.7%로 나타남
- 50대는 그렇다 83.3%, 아니다 16.7%, 60대는 그렇다 80%, 아니다 20%로 분석됨
-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참여의사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다가 50대를 전후로 부정적인 답변이 증가함

8) III. 3_1_4. 1년 내 브릿지프로그램 참여 의사(보통을 따로 분류)에 대한 나이대별 교차표

- 분석결과, 브릿지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에서 30대는 아니다와 그렇다가 각각 37.5%로 같고 보통이다가 25%로 나타남
- 40대는 그렇다 55.6%, 보통이다 27.8%, 아니다 16.7%, 50대는 그렇다 66.7%, 보통이다 16.7%, 아니다 16.7%로 나타났으며, 60대는 그렇다 70%, 보통이다 10%, 아니다 20%로 나타나 40, 50, 60대의 참여의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브릿지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됨

9) Ⅲ. 3_1_5. 퇴직 전후 브릿지프로그램 참여 의사(보통을 그렇다에 포함)에 대한 나이
대별 교차표

- 퇴직 전후 브릿지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에서는 30대는 그렇다 66.7%, 아니다 33.3%, 40대는 그렇다 76.5%, 아니다 23.5%로 나타남
- 50대는 그렇다 83.3%, 아니다 16.7%, 60대는 그렇다 84.6%, 아니다 15.4%로 분석됨
-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퇴직 전후 브릿지프로그램 참여의사가 긍정적으로 표출됨

10) Ⅲ. 3_1_5. 퇴직 전후 브릿지프로그램 참여 의사(보통을 따로 분류)에 대한 나이대
별 교차표

- 분석결과, 30대의 브릿지프로그램 참여의사는 그렇다 50%, 보통이다 16.7%, 아니다 33.3%이며, 40대의 참여의사는 그렇다 41.2%, 보통이다 35.3%, 아니다 23.5%로 나타남
- 50대는 그렇다 66.7%, 보통이다 16.7%, 아니다 16.7%, 60대는 그렇다 76.9%, 보통이다 7.7%, 아니다 15.4%로 분석됨
-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퇴직 전후 참여의사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임

11) Ⅲ. 3-2 연령대별 참여결정을 위한 근무환경

- 참여결정을 위한 근무환경에 대한 연령대별 응답에서 30대는 대도시, 보험, 주거비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40대는 보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음으로 주거비지원, 대도시, 공공기관 근무 순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50대는 주거비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다음으로 보험여부, 공공기관 근무, 대도시 희망 순으로 중요하게 여겼으며, 60대는 주거비지원, 대도시 희망과 보험, 공공기관 근무 순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12) III. 3-2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의사가 있는 응답자(보통을 그렇다에 포함) 중 참여결정을 위한 근무환경 교차표

- 현재 브릿지프로그램에 참여의사가 있는 응답자(보통을 그렇다에 포함) 중 참여결정을 위한 근무환경에 대한 응답률은 현지기관의 주거비알선이 8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SOS보험이 82.5%, 해외공관 또는 공공기관이 65%, 대도시희망이 62.5% 순으로 나타남

13) 퇴직 전후 프로그램 참여의사가 있는 응답자(보통을 그렇다에 포함) 중 참여결정을 위한 근무환경 교차표

- 퇴직 전후 브릿지프로그램에 참여의사가 있는 응답자(보통을 그렇다에 포함) 중 참여결정을 위한 근무환경에 대한 응답률은 SOS보험이 82.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현지기관의 주거비알선이 80%, 해외공관 또는 공공기관이 65%, 대도시 희망이 62.5%로 나타남

■ 사전 준비 프로그램 등

14) IV. 4-1 프로그램 참여자 사전 결정 기준

-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전확정 기간에 대한 응답률은 3년 전이 6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년 전이 17%, 5년 전이 15.1% 순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프로그램 참여자 사전확정 기간에 대해 3년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1년 전과 5년 전은 선호도가 낮지만 서로 비슷한 빈도를 보임

15) IV. 4-1 연령대별 프로그램 참여자 사전 결정 기준

- 분석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전확정 기간에 대한 응답은 모든 연령에서 3년 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30대와 40대는 3년 전, 1년 전, 5년 전 순으로 응답하였고, 50대는 3년 전, 5년 전, 1년 전 순으로 응답함
- 60대는 3년 전, 1년 전과 5년 전이 15.4%로 동일하게 나타남
-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3년 전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겼으나 1년 전과 5년 전에 대한 의견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남

16) IV. 4-3 사전결정 시 나라별, 분야별 예정인원

- '사전결정 시 나라별, 분야별로 예정인원을 정한다'에 대한 응답은 5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7명, 9명, 3명, 2명 이상 순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예정인원은 5명~7명이 적당한 것으로 보임

17) IV. 4-3 연령대별 사전결정 시 나라별, 분야별 예정인원

- 분석결과, '사전결정 시 나라별, 분야별로 예정인원을 정한다'에 대한 연령대별 응답으로 30대는 5명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다음이 3명과 7명, 9명 이상 순으로 나타남
- 40대 역시 5명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다음이 7명과 9명 이상 순으로 응답함
- 50대는 7명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뒤로 5명, 3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60대도 7명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뒤로 5명, 3명, 2명과 9명 이상 순으로 대답함
- 결론적으로 30대와 40대는 예정인원으로 5명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50대와 60대는 7명을 가장 선호해 차이가 있음

18) IV. 4-4 영어성적 관리 및 성적향상도 관리

- 분석결과, '영어성적은 일정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학원수강 등의 기회를 확대하고 성적향상도를 감안하여 관리한다'에 대해서는 96.2%가 그렇다고 대답함

19) IV. 4-5 온라인강좌를 통한 습득기회 부여

- 분석결과, '희망하는 현지어가 있는데 학원수강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강좌 등을 통해 습득기회를 부여한다'에 대해서는 90.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3.8%만이 아니라고 응답함

20) IV. 4-6 시립대 개도국학생과 교류, ASEAN센터 및 자가 연수기회의 확대

- 분석결과, '희망하는 현지국가 사정은 시립대 개도국학생과의 교류, ASEAN센터 및 자가 연수기회(교육점수 인정 등)를 확대한다'에 대해서는 90.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3.8%만이 아니라고 응답함

21) IV. 4-9 서울시 (사내)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보통을 필요하다에 포함)

- ‘서울시 (사내)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률은 필요하다가 94.3 %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무응답이 3.8%, 필요없다가 1.9% 순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서울시 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22) IV. 4-9 연령대별 서울시 (사내)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보통을 필요하다에 포함)

- ‘서울시 인증제도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연령대별 응답률은 30대, 50대, 60대에서 필요하다가 100%로 나타났으며 40대에서는 필요하다가 94.4%, 필요없다는 5.6%로 나타남
- 분석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서울시 (사내)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상당히 높게 여기는 것으로 파악됨

23) IV. 4-9 서울시 (사내)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보통을 따로 분류)

- ‘서울시 (사내)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은 그렇다가 66%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8.3%, 아니다가 1.9% 순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 (사내) 인증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됨

24) IV. 4-9 연령대별 서울시 (사내)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보통을 따로 분류)

- ‘서울시 (사내)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령대별 응답률은 30대에서 그렇다 62.5%, 보통이다 37.5% 순으로 나타났고, 40대는 그렇다 72.2%, 보통이다 22.2%, 아니다 5.6% 순으로 나타남
- 50대는 보통이다와 그렇다가 각각 50%씩, 60대는 그렇다 81.8%, 보통이다 18.2% 순으로 분석됨
- 분석결과, 40대와 60대가 30대와 50대보다 서울시 (사내)인증제도의 도입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인증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냄

25) IV. 4-10 인증제도의 등급구분 및 인사상 가점·우대의 필요성(보통을 필요하да에 포함)

- ‘인증제도는 등급을 구분하고 인사상의 가점이나 우대가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률은 필요하다가 84.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필요없다와 무응답이 각각 7.5%로 나타남
- 분석결과, 응답자 중 대부분이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제도의 등급을 구분하고 인사상의 가점이나 우대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함

26) IV. 4-10 연령대별 인증제도의 등급구분 및 인사상 가점·우대의 필요성(보통을 필요하다에 포함)

- ‘인증제도는 등급을 구분하고 인사상의 가점이나 우대가 필요하다’에 대해 30대는 필요하다 87.5%, 필요없다 12.5% 순으로 나타났고, 40대는 필요하다 94.1%, 필요없다 5.9% 순으로 나타남
- 50대는 필요하다 91.7%, 필요없다 8.3% 순으로, 60대는 필요하다 90%, 필요없다 10% 순으로 분석됨
-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인증제도의 등급구분과 인사상의 가점 및 우대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27) IV. 4-10 인증제도의 등급구분 및 인사상 가점·우대의 필요성(보통을 따로 분류)

- ‘인증제도는 등급을 구분하고 인사상의 가점이나 우대가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률은 그렇다가 62.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2.6%, 아니다가 7.5% 순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인증제도의 등급구분과 인사상의 가점 및 우대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함

28) IV. 4-10 연령대별 인증제도의 등급구분 및 인사상 가점·우대의 필요성(보통을 따로 분류)

- ‘인증제도는 등급을 구분하고 인사상의 가점이나 우대가 필요하다’에 대한 연령대별 응답에서 30대는 그렇다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7.5%, 아니다가 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40대는 그렇다 76.5%, 보통이다 17.6%, 아니

다 5.9% 순으로 나타남

- 50대는 그렇다 66.7%, 보통이다 25%, 아니다 8.3% 순으로, 60대는 그렇다 60%, 보통이다 30%, 아니다 10% 순으로 분석됨
- 분석결과, 연령대별로 절반 이상이 인증제도의 등급구분 및 인사상 가점·우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29) IV. 4-11 자격인증제도의 도입 시 참여 의사(보통을 필요하да에 포함)

-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에 대한 응답률은 있다가 88.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무응답이 9.4%, 없다가 1.9% 순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자격인증제도의 도입 시 응답자의 대부분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30) IV. 4-11 연령대별 자격인증제도의 도입 시 참여 의사(보통을 필요하да에 포함)

-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에 대한 연령대별 응답에서 30대, 40대, 50대는 100%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0대는 있다 88.9%, 없다 11.1%로 나타남
- 분석결과, 자격인증제도의 도입 시 60대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대부분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31) IV. 4-11 프로그램 참여자 사전 준비 기간(보통을 필요하да에 포함)과 자격인증제도 도입 시 참여 의사의 관계

-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 중 ‘프로그램 참여자를 몇 년 전을 기준으로 사전에 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응답률은 3년 전이 68.1%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5년 전이 12.8%, 1년 전이 19.1% 순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프로그램 참여자 사전확정을 3년 전을 기준으로 할 때 자격인증제도 도입 시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32) IV. 4-11 자격인증제도의 도입 시 참여 의사(보통을 따로 분류)

-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에 대한 응답률은 그렇다가 64.2%로

-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4.5%, 아니다가 1.9% 순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격인증제도 도입 시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33) IV. 4-11 연령대별 자격인증제도 도입 시 참여의사(보통을 따로 분류)

-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에 대한 연령대별 응답에서 30대는 그렇다가 7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5% 순으로 나타났으며, 40대는 그렇다 64.7%, 보통이다 35.3% 순으로 나타남
- 50대는 그렇다 66.7%, 보통이다 33.3% 순으로, 60대는 그렇다 77.8%, 보통이다와 아니다 각각 11.1%로 분석됨
- 분석결과, 모든 연령에서 자격인증제도 도입 시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아니라는 의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자격인증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4) IV. 4-11 프로그램 참여자 사전 준비 기간(보통을 따로 분류)과 자격인증제도 도입 시 참여 의사의 관계

-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 중 ‘프로그램 참여자를 몇 년 전을 기준으로 사전에 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응답률은 3년 전이 64.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1년 전이 20.6%, 5년 전이 14.7% 순으로 나타남
-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프로그램 참여자를 몇 년 전을 기준으로 사전에 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응답은 3년 전이 76.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1년 전이 15.4%, 5년 전이 7.7% 순으로 분석됨
- 분석결과, 자격인증제도 도입 시 프로그램 참여자를 3년 전을 기준으로 사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35) 인증제도 필요여부(Q4_9,(보통을 필요하다에 포함)) * 프로그램 참여의사(Q4_11, (보통을 필요하다에 포함)) 교차표

-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에 대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서

울시 (사내)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률은 필요하다 97.9%, 아니다 2.1%로 나타남

- 분석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격인증제도 도입 시, 서울시 인증제도의 도입 역시 필요하다고 인식함

36) IV. 4-11 연령대별 자격인증제도 도입 시 사전결정에 대한 나라별 분야별 예정인원(보통을 필요하다에 포함) 교차표

-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 중 사전결정을 위한 나라별 분야별 예정인원에 대한 응답률은 5명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7명이 32.6%, 9명 이상이 11.6%, 3명이 7%, 2명이 2.3% 순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프로그램 참여자 사전결정 시 예정인원을 5명으로 할 때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임

37) IV. 4-11 연령대별 자격인증제도 도입 시 사전결정에 대한 나라별 분야별 예정인원(보통을 따로 분류) 교차표

-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 중 사전결정을 위한 나라별 분야별 예정인원에 대한 응답률은 5명과 7명이 각각 37.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9명 이상이 15.6%, 3명이 6.3%, 2명이 3.1%로 나타남
-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사전결정을 위한 나라별 분야별 예정인원에 대한 응답률은 5명이 72.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7명이 18.2%, 3명이 9.1% 순으로 분석됨
- 분석결과, 자격인증제도 도입 시, 사전결정 인원을 5명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38) IV. 4-11 자격인증제도 도입 시 참여의사와 서울시 (사내)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보통을 따로 분류) 교차표

-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 중 '서울시 (사내)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률은 그렇다가 88.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보통이다가 11.8%로 나타남

-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서울시 (사내)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률은 보통이다가 61.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그렇다가 30.8%, 아니다가 7.7% 순으로 분석됨
- 분석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격인증제도 도입 시 서울시 인증제도의 도입 역시 필요하다고 인식함

39) IV. 4-12 퇴직대상자에 대한 해외 장·단기 연수(보통을 따로 분류) 교차표

- 전문가 제도 도입방식에서 ‘해외 단기, 장기 연수(훈련)를 보완활용’에 대한 퇴직대상자의 응답률은 바람직하다가 7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아니다가 16.7%, 보통이다가 8.3% 순으로 나타남

40) IV. 4-13 퇴직대상자에 대한 공로연수제도 보완활용 교차표

- 전문가 제도 도입방식에서 ‘공로연수제도 보완활용(현직업무로부터 자유, 자가연수 등 대체)’에 대한 퇴직대상자의 응답률은 바람직하다 80%, 보통이다 20%로 분석됨

41) IV. 4-14 퇴직대상자에 대한 기업휴직 등 휴직제도 보완활용 교차표

- 전문가 제도 도입방식에서 ‘기업휴직 등 휴직제도 보완활용(현재 국내기업 위주에서 해외개발협력사업 기업추가)’에 대한 응답률은 바람직하다 90%, 보통이다 10%로 나타남

42)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자격인증제도 도입 시 참여 의사와 전문가 제도 도입방식 교차표

- 분석결과, 프로그램 참여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휴직제도 보완활용, 공로연수제도 보완활용, 해외 장·단기 연수 보완활용 모두에 대해 대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 응답자들은 이 중 기업휴직 등 휴직제도 보완활용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다음으로 공로연수제도 보완활용, 해외 장·단기 연수 보완활용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료후 희망진로

43) V. 5-1 프로그램의 기간을 6개월로 했을 때 적절성

- 분석결과,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6개월로 하고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기간이 적

절하다'에 대한 응답률은 보통이다가 41.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그렇다가 22.6%, 짧다가 17%, 매우 그렇다가 7.5%, 아주 짧다가 5.7% 순으로 나타남

44) V. 5-2 프로그램 종료 시 유사제도에 편입할 의사

- 분석결과, '본 프로그램 종료 시(공무원 퇴직 후) 유사제도(KOICA 전문가 파견 등)에 편입할 의사가 있다'에 대한 응답률은 그때 생각하겠다는 37.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그렇다가 28.3%, 매우 그렇다가 13.2%, 아니다가 7.5% 순서로 파악됨

45) V. 5-3 프로그램 종료 후 해당국가에 진출한 기업체에 취업할 의사

- 분석결과, '해당국가에 진출한 기업체에 본 프로그램 종료 후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할 의사가 있다'에 대한 응답률은 그렇다가 35.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그때 생각하겠다는 34%, 매우 그렇다가 13.2%,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가 각각 3.8% 순으로 나타남

연구조사 설문지(공무원용/공로연수자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에서는 기술보유 공무원 중 희망자에 대해 개발도상국 해외개발협력사업에 활용(봉사)하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연구 중입니다.

현재 市재직자 기술자격증 보유현황은 총 61,692개(일반직 51,071개)입니다. 한편 서울의 도시발전 과정에서 익힌 실무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기를 희망하는 나라와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 일정준비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술 공무원 보유기술을 활용하는 브릿지(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013. 12. 서울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윤규 (연구진 ☎ 02-2149-1335 : 주형태, 배정윤)

직 별 직 급 연 령	① 01일반직, 02계약직, 03별정직, 04기능직, 05정무직 ⇨ 해당란에 O표기 ② 01토목, 02도시, 03 건축, 04기계, 05화공, 06전기 ⇨ O표기 또는 기입() ③ 직급(급) ④ 연령/성별 (년 월 생, 남/여) ④ 공무원 근속기간 (년) 2013.12.30. 기준
보유자격증 (전부 열거) 자동차, 중장비 컴퓨터, 엑셀 등	① 기술분야 : ② 일반자격 : ③ 주요프로젝트 경력: ④ 학력 : 01고졸, 02전문대졸, 03대학졸, 04대학원석사, 05대학원박사 ⑤ 전공분야 【 대학 (), 대학원 () 】 ※ 대학, 대학원 전공이 다를 경우 모두 기재, 석,박사는 모두 표기
외 국 어	① 토플, 토익, 텡스 등 영어공인시험을 응시한 적이 있다(기간불문, 최고성적 기준) ①-1 토익 700, IBT 75, 텡스 600 이하다 ①-2 토익 700, IBT 75, 텡스 600 이상 (①-2 미만) ①-3 토익 775, IBT 83, 텡스 700 이상이 된다 ② 의사소통 능력(공인시험유무 불문) ②-1 말하기, 듣기 : 01협의토론가능, 02일상업무가능, 03일상생활가능, 04불가 ②-2 읽기, 쓰기 : 01협의토론가능, 02일상업무가능, 03일상생활가능, 04불가
2외국어	※ 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 인도말레이어, 태국어, 몽골어 등 제2외국어 ① 배운 적이 있거나 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 ①-1 : 본인의 능력을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면(상 중 하) ① 배운 적이 없고, 배울 의향도 없다

I

해외개발협력 사전 이해도

질 문 내 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모른다	들어본 듯하다	명칭만 들었다	알고 있다	매우 잘안다
01.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적고 인구밀도가 높아 국제적인 교역이나 대외 진출이 신제품개발과 맞지 않게 향후 성장에 중요하다					
02. 국제적인 원조는 무상외에 유상원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03. ODA(공적개발원조)용어와 서울시 ODA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					
04. 코이카(KOICA)의 해외봉사단, 중장기자문단, 퇴직전문가(NIP) 그리고 USAID, EDCF, AUSAID에 대해 들었거나 알고 있다					

※ 구상 중인 해외협력브릿지프로그램은 1단계로 퇴직 1년전에 희망자에 한해 개발도상국가에서 보유한 기술, 경험을 활용해 근무하는 것입니다(2단계는 사전준비 프로그램 등).
이 경우 서울시지급 급여외 월 3백만원 정도의 주거비 등을 지급받게 되고(안) 1인 근무가 원칙이며(부부의 경우 개인부담으로 동반가능) 보고서 제출, 강의설명, 감독유지보수 등의 임무가 부여됩니다.

II

업무에 대한 기본 이해도

질 문 내 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 젊은 직원의 통솔하에 보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할 수 있다					
02. 보고서작성, 조사 등은 컴퓨터 문서작업 등을 통해 직접 할 수 있다					
03. 한국과 다른 제도, 규정, 관례,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다					
04. 물품구매, 공사감독, 시설물관리 등 해당기술분야에 대해 조연을 하거나 직접 작성할수 있다					
05 사업기획을 포함 사업전체에 대한 총괄감독(PMC, PM)를 하거나 보조를 할 수 있다					
06. 보고서 등은 현지언어나 영어로 작성·보고할 수 있다 ※ 현재기준 단, 미래의향이 있을 경우 () 표기후 체크					

Ⅲ

연령대별 제도참여 의사

3-1. 참여결정 영향요소 및 참여시기

질문 내용	자녀 교육	주거 질병	휴양 정착	보수 승진	국내 재취업	언어 문화
개발도상국에서 일한다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요한 것 순서대로 1, 2, 3번 3개만 순서를 기재) 자신이 속한 연령대와 향후 속할 연령대에도 동시 설문에 답해주세요	01. 30대					
	02. 40대					
	03. 50대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04. 현재(1년내) 위 브릿지프로그램에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하고 싶다						
05. 나는 퇴직 전후에 참여하고 싶다						

※ 참여시기 기타의견(예 : 과장진급 후 50세될 때 등) : <

>

3-2. 참여결정을 위한 근무환경

질문 내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 근무지는 해당국가의 수도 또는 대도시이기를 희망한다					
02. 치안 등을 감안하여 강화된 SOS보험(긴급 시 헬기수송)이 필요하다					
03. 근무공간은 해외공관 또는 공공기관이 바람직하다					
04. 현지 주거비는 현지기관에서 알선해 주기를 희망한다					

IV

사전 준비 프로그램 등

4-1. 프로그램 참여자 사전확정 필요성 등

질문 내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 프로그램 참여자를 1년 전을 기준으로 사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 1년 전 ▷ 매우 그렇다. / 3년 ▷ 그렇다. / 5년 ▷ 보통 사전에 결정할 필요없다일 경우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 중 선택					
02. 사전결정자에게는 배낭여행 등으로 사전 탐색기회를 일정비율 우선 부여한다					
03. 사전결정 시 나라별, 분야별로 예정인원을 정한다	2명	3명	5명	7명	9명-

4-2. 언어 및 현지지역정보(문화, 제도 등)

질문 내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04. 영어성적은 일정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학원수강 등의 기회를 확대하고 성적향상도를 감안하여 관리한다					
05. 희망하는 현지어가 있는데 학원수강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강좌 등을 통 해 습득기회를 부여한다					
06. 희망하는 현지국가 사정은 시립대 개도국학생과의 교류, ASEAN센터 및 자가 연수기회(교육점수 인정 등)를 확대한다					

4-3. 보고서작성, 국제개발협력 교육

질문 내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07. 영문 보고서 작성교육은 인재개발원(서울시) 또는 국토해양인재 개발원 또는 코이카 등을 통해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한다					
08. 국제개발협력 교육은 교육인정제(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코이카 출장교육)나 국내연수 등 평상시 습득하도록 유도한다					

4-4.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사내)자격인증제도 도입

질문 내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09. 위 1-3까지 준비를 촉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 (사내)인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10. 인증제도는 등급을 구분하고 인사상 가점이나 우대가 필요하다					
11.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					

4-5. 전문가 제도 도입방식

※ 공무원 장기교육훈련과의 연계는 지금도 가능하나 나이, 훈련 후 의무복무 등 제한있음

질문 내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바람직	매우 바람직
12. 해외 단기, 장기연수(훈련)를 보완활용 (나이상향, 의무복무조건 완화 또는 면제)					
13. 공로연수 제도 보완활용(현직업무로부터 자유, 자기연수 등 대체)					
14. 기업휴직 등 휴직제도 보완활용 (현재 국내기업 위주에서 해외개발협력사업 기업추가)					

V

종료 후 희망진로

질문 내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6개월로 하고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기간이 적절하다(짧으면 '아니다', 아주 짧다는 '매우 아니다')					
02. 본 프로그램 종료 시(공무원 퇴직후) 유사제도에(KOICA 전문가 파견 등) 편입할 의사가 있다(그때 생각하겠다는 '보통')					
03. 해당국가에 진출한 기업체에 본 프로그램 종료후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 면 취업할 의사가 있다(그때 생각하겠다는 '보통')					

※ 퇴직 전후 국제개발협력 브릿지 프로그램에 대해 **자유의견이 있거나 심층인터뷰를 희망** 하시는 분은 의견이나 연락처를 뒷면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문가·정책가/기업체 설문결과-

■ 도시인프라 협력요원의 역할(공통)

01. 국제개발협력에서 “서울시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협력대상국/기업 방문시 서울시 시설물 투어/세미나 협조	12	46	4	15	3	12	8	31
충분한 ODA자금확보(마스터플랜, 타당성분석, 용역비지원 등)	5	19	5	19	12	45	4	15
서울시에서 개발협력 컨설턴트 등 인력 해외파견	6	23	11	43	8	31	1	4
해외 인프라사업에 공동참여 (지분투자, 인력 등)	3	12	6	23	3	12	13	50
합계	26	100	26	100	26	100	26	100
기타의견	서울시 도시개발(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know-how를 개도국에 전수 해주고 우수인재들을 활용하여 타당성분석, 용역컨설팅을 해주면 좋은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함							

- 국제개발협력에서 서울시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1순위로 협력대상국/기업방문 시 서울시 시설물 투어 및 세미나 협조라고 응답하였고 2순위로는 서울시에서 개발협력 컨설턴트 등 인력해외파견, 3순위로는 충분한 ODA자금 확보라고 응답함

02. 위에서 서울시에서 “무리없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협력대상국/기업 방문시 서울시 시설물 투어/세미나 협조	23	88	1	4	2	8	0	0
충분한 ODA자금확보(마스터플랜, 타당성분석, 용역비지원 등)	2	8	7	27	10	37	4	15
서울시에서 개발협력 컨설턴트 등 인력 해외파견	1	4	15	57	9	35	0	0
해외 인프라사업에 공동참여 (지분투자, 인력 등)	0	0	2	8	2	8	19	73
무응답	0	0	1	4	3	12	3	12
합계	26	100	26	100	26	100	26	100

- 1번 응답에 대한 가능성으로 응답자들은 협력 대상국/기업방문 시 서울시 시설물 투어 및 세미나 협조라고 응답하였고 2순위로는 서울시에서 개발협력 컨설턴트 등 인력해외파견, 3순위로는 충분한 ODA자금 확보 순으로 응답해 처음 응답의 우선순위와 같았음

03. “서울시”가 국제도시협력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 투입과 무관하게)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성, 인권, 빈곤	0	0	0	0	1	4	2	8
환경, 복지	0	0	2	8	3	12	7	26
행정 거버넌스	6	23	1	4	4	15	1	4
보건, 의료	0	0	1	4	1	4	1	4
상·하수도	3	12	7	27	5	19	2	8
도시개발, 주택	9	34	4	15	3	12	4	15
교통, 도로	5	19	9	34	6	22	2	8
쓰레기행정제도	2	8	1	4	2	8	6	23
무응답	1	4	1	4	1	4	1	4
합계	26	100	26	100	26	100	26	100
기타의견	도시주택, 도로, 교통 개발의 유경험 사례들을(DB)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고, 상·하수도 및 쓰레기행정제도는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함							

- 서울시가 국제도시협력사업 시행 시 중앙정부나 타지자체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로는 도시개발과 주택분야가 34%, 행정거버넌스 분야가 23%, 교통 도로분야가 19%로 나타남. 기타의견으로 여러 경험에 의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봄

04. 위 03에서 선택한 비교우위 분야의 원인은?(2개까지)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시 가용예산이 많아서	0	0	0	0
교통, 시설, 교육, 인재풀 등 지역여건이 좋아서	9	35	10	38
서울시 행정제도나 우수한 행정인력	8	30	6	23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하다 보니	9	35	8	31
무응답	0	0	2	8
합계	26	100	26	100
기타의견	좋은 인재(교육,인재풀)를 보유 /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 know-how DB 보유			

- 위 03번의 질문의 비교우위 분야 선택 이유로는 1순위로 교통, 시설, 교육, 인재풀 등 지역여건이 좋아서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서울시의 우수한 행정제도와 인력, 여러 경험사례도 높은 비율임

05. 도시인프라 분야 국제개발협력 인력공급 애로의 주 원인은?

		빈도	비율
사전수요예측이 힘들		5	19
단기의 계약직 고용형태		8	31
특정업무 적격자 요구		2	8
전문분야외 언어, 개발마인드 요구		10	38
기타		1	4
합계		26	100
기타의견	1) 인력전문가의 언어에 따른 의사소통 제약 해결 필요 2) 전문가 육성 필요 3) 수원국 요청주위에 근거한 수요조사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전수요 예측이 어려움 4) 1~4번 모두 애로요인으로 우려됨		

- 도시인프라 분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인력공급의 주된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38%가 전문분야 외의 언어와 개발마인드 요구라고 응답하였고 이어 단기 계약고용 형태와 사전예측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함

06. 도시인프라(도시건설, 상하수도, 교통 등) 국제협력요원의 바람직한 역할수준은 ?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PMC, PM, 분야별 컨설턴트	18	69	4	15	5	19
운영관리자	0	0	12	47	13	50
개도국 공공기관 협조업무 지원	8	31	10	38	8	31
합계	26	100	26	100	26	100
기타의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업무영역 확보					

- 도시인프라 국제협력요원의 바람직한 역할 수준에 대한 응답률은 1순위로 PMC, PM, 분야별 컨설턴트가 가장 높았고, 이어 개도국 공공기관 협조업무지원 운영관리자 순으로 나타남

07. 도시인프라 국제협력요원의 직무자질(공통TOR) 중 주요한 것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프로젝트 발주경험(단일공사, 복합공사), 사업기획, 국제입찰	13	50	6	23	6	23	0	0
설계, 관리, 시공, 공정관리	4	15	12	46	8	31	1	4
민원관리, 인허가 관리	0	0	2	8	8	31	16	61
영어 및 현지언어	9	35	6	23	4	15	8	31
무응답	0	0	0	0	0	0	1	4
합계	26	100	26	100	26	100	26	100
기타의견	말씀하신 4개의 분야는 실제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필요한 분야입니다. 일단 국제협력요원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현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과 더불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 도시인프라 국제협력요원의 직무자질 중 주요한 것에 대한 응답률은 1순위로 프로젝트 발주경험·사업기획·공정관리가 가장 높았고 2순위와 3순위로 설계·관리·시공·공정관리, 4순위로 민원관리·인허가 관리의 순으로 나타남

08-1. (현직)교수를 협력요원으로 할 때 장점은?

	빈도	비율
전문성	21	81
언어능력	4	15
개발협력사업 경험	1	4
효율적 업무	0	0
합계	26	100

- (현직)교수를 협력요원으로 할 때 장점에 대한 응답률은 전문성이 81%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언어능력이 15%, 개발협력사업 경험이 4% 순으로 나타남

08-2. (현직)교수를 협력요원으로 할 때 단점은?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실무경험 부족	20	76	2	8
책임성 부족	3	12	7	27
전공분야 외 다분야 고려미흡	2	8	11	41
활동기간 단절(방학기간만 활동)	1	4	3	12
무응답	0	0	3	12
합계	26	100	26	100

- (현직)교수를 협력요원으로 할 때 단점에 대한 응답률은 1순위에서는 실무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책임성부족, 전공분야 외 다분야 고려미흡, 활동기간단절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에서는 전공분야 외 다분야 고려미흡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책임성부족, 활동기간 단절, 실무경험 부족 순으로 응답됨

09-1. (현직)연구원을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장점은?

	빈도	비율
전문성	19	72
언어능력	0	0
개발협력사업 경험	3	12
효율적 업무	3	12
무응답	1	4
합계	26	100

- (현직)연구원을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장점에 대한 응답률은 전문성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개발협력사업 경험이 12%, 효율적 업무가 8%, 무응답이 4% 순으로 나타남

09-2. (현직)연구원을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단점은?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실무경험 부족	15	58	6	23
책임성 부족	6	23	4	15
전공분야 외 다분야 고려 미흡	4	15	11	43
무응답	1	4	5	19
	26	100	26	100

- (현직)연구원을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단점에 대한 응답률은 1순위에서 실무경험 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책임성 부족, 전공분야 외 다분야 고려미흡, 무응답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에서는 전공분야 외 다분야 고려미흡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실무경험 부족, 무응답, 책임성 부족 순으로 응답됨

10-1. (현직)민간기업체직원을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장점은?

	빈도	비율
전문성	7	27
언어능력	0	0
개발협력사업 경험	16	62
효율적 업무	2	8
무응답	1	4
합계	26	100
기타의견	민간기업과 협력 또는 공동참여를 한다면 책임성 극복가능 및 다방면의 인재 참여 가능	

- (현직)민간기업체직원을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장점에 대한 응답률은 개발협력사업 경험이 6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전문성이 27%, 효율적 업무가 8%, 무응답이 4% 순으로 나타남

10-2. (현직)민간기업체직원을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단점은?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실무경험 부족	0	0	0	0
책임성 부족	5	19	3	12
전공분야 외 다분야 고려미흡	9	35	7	27
기간제 계약직으로 우수자 응모희박	10	38	11	42
무응답	2	8	5	19
합계	26	100	26	100

- (현직)민간기업체직원을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단점에 대한 응답률은 1순위에서 전공분야 외 다분야 고려미흡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우수자 응모희박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책임성 부족, 무응답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에서는 기간제 계약직 우수자 응모희박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전공분야 외 다분야 고려미흡, 무응답, 책임성 부족의 순으로 분석됨

11-1. (현직)공무원을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장점은?

	빈도	비율
전문성	6	23
언어능력	1	4
개발협력사업 경험	3	12
개도국 공공기관 접촉	15	58
무응답	1	4
합계	26	100

- (현직)공무원을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장점에 대한 응답률은 개도국 공공기관 접촉이 5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전문성이 23%, 개발협력사업 경험이 12%, 언어능력과 무응답이 각각 4% 순으로 나타남

11-2. (현직)공무원을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단점은?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실무경험 부족	3	12	3	12
책임성 부족	5	19	1	4
전공분야 외 다분야 고려미흡	8	31	3	12
언어능력	9	34	13	49
무응답	1	4	6	23
합계	26	100	26	100

- (현직)공무원을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단점에 대한 응답률은 1순위에서 전공분야 외 다분야 고려미흡과 언어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책임성 부족, 실무경험 부족, 무응답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에서는 언어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무응답, 실무경험부족과 전공분야 외 다분야 고려미흡, 책임성부족 순으로 응답됨

12-1. NGO활동가를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장점은?

	빈도	비율
언어능력	1	4
개발협력 현지경험	12	46
법분야 전문성	10	38
무응답	3	12
합계	26	100

- NGO활동가를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장점에 대한 응답률은 개발협력 현지경험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범분야 전문성이 38%, 무응답이 12%, 언어능력이 4% 순으로 나타남

12-2. NGO활동가를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단점은?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실무경험 부족(인프라)	14	54	5	19
책임성 부족	6	23	4	15
우수응모자 확보 희박	5	19	10	39
무응답	1	4	7	27
합계	26	100	26	100

- NGO활동가를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단점에 대한 응답률은 1순위에서 실무경험 부족(인프라)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책임성 부족과 우수응모자 확보 희박, 무응답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에서는 우수응모자 확보 희박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무응답, 실무경험 부족과 책임성 부족 순으로 분석됨

13. 서울시에서 재직공무원 대상 도시인프라 pool을 구성 시 국제개발협력에 도움이 될지와 그사유?

	빈도	비율	내용	빈도	비율
도움된다	20	71	인재풀을 확대	1	5
			민간과 겹치지 않는 분야를 한다면 긍정적	8	40
			취약한 도시인프라부분에 전문가 활용가능성 증대	11	55
안된다	8	29	분절화 가속화	5	63
			민간개인 참여기회 박탈	3	37
			(기타) 실무경험 부족	0	0
무응답	0	0		0	0
총계	28	100	2명 중복체크		
기타의견	민간기업의 도시인프라 시공 및 관리 능력이 높은 부문에서 민간과 경쟁할 경우 민원 발생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				

- 서울시에서 재직공무원 대상 인프라 pool 구성 시 국제개발협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71%가 된다고 응답하였고, 29%가 안된다고 응답함
-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 중 취약한 도시인프라부분에 전문가 활용가능성이라 응답한 사람이 5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민간과 겹치지 않는 분야를 한다면 긍정적이 40%, 인재풀을 확대가 5%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안된다고 대답한 사람 중 분절화 가속화가 6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민간개인 참여기회 박탈이 37%로 분석됨

연구조사설문지 (전문가, 정책가, 기업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해외(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서울시)기술 직공무원 활용(봉사) 생태계조성방안】이라는 단기 정책과제를 연구 중입니다. 현재 시 재직자들은 총 61,692개(일반직 51,071개)의 기술자격증을 보유 중입니다. 한편 서울의 도시발전 과정에서 익힌 실무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기를 희망하는 나라와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 일정준비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술공무원 보유기술을 활용하는 브릿지(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013. 11. 서울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윤규 (연구진 ☎ 02-2149-1335 : 주형태, 배정윤)

재직기관 관련 경력기간 경력 (학위/ 자격사업/ 프로젝트) 연령	① 01.기업체, 02.정부·지자체, 03.공공기관, 04.대학,연구소, NGO, 05.기타() ② 01.1년 미만, 02.1년~3년, 03.3년~5년, 04.5년~10년, 05.기타() ③ 관련학위(), 관련자격증() 관련사업() ④ 출생연도/성별(년/)
연구배경	<p>가. 이 연구는 서울시청이라는 기관에서 도시 관리자로서의 경험자산을 활용한 국제개발 협력에 기여할 바에 대한 분석임.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기술 공무원의 체화, 전수된 도시인프라 발전경험을 유·무상사업을 통해 전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퇴직 전에 인력자원 활용의 생태계를 고안하는 것입니다.</p> <p>나.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상원조 외 유상원조도 일부 고려하되 도시의 인프라 부분을 주요대상으로 한다. 2. 거대도시,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공공분야가 독점했던 사업경험에 중점을 두고 도시인프라 사업 중 1차적으로 도시계획, 주거계획, 상하수도, 도로, 교통, 철도, 쓰레기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둔다. 3. 수원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주위에 입각한 사업은 무상원조를 벗어날 경우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연구는 무상원조 외 유상원조와 기업체의 사업진출지원으로 확장가능성을 열어둔다. 4. 국제개발협력에서 현재 전문기술인력 총원시스템은 한국의 고용관습과 매우 다르다. 즉 수료는 position별로 특정(나라, 직위, 시기, 기술)되어 모집한다. 즉 단기의 경력 계약직 채용시스템과 유사하다. 따라서 수급매칭이 쉽지 않다. 5. 현재 국제개발협력의 인력양성은 언어, 해당기술(인프라)을 갖춘 융합인력이 부족하다. 6. 현재 중장기전문가(WFA)와 퇴직전문가(KSE)와 유사하나 차별성을 가진다.
※ 구상 중인 해외협력 브릿지프로그램은 1단계로 퇴직 1년 전에 희망자에 한해서 개발도상국가에서 기 보유한 기술, 경험을 활용해 근무하는 것입니다(현재 WFA, KSE와 유사). 이 경우 서울시 지급 급여 외 연계기관에서 일정금액, 주거비 등을 지급받게 되고 도시인프라 분야에서 계획수립자문, 보고서 제출, 강의설명, 감독유지보수 등 임무가 부여됩니다(안)(현재 WFA, KSE는 급여라기보다 봉사사례비와 주거비를 포함해 월 3백~4백만원 지급 등).	

I

서울시 및 (도시인프라국제협력)요원의 역할<공통>

질 문 내 용	자유의견 기술
01. 국제개발협력에서 “서울시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기대치가 높은 순으로) : ①____ ②____ ③____ ④____ 1) 협력대상국/기업 방문 시 서울시 시설물투어/세미나 협조 2) 충분한 ODA자금확보(마스터플랜, 타당성분석 용역비지원 등) 3) 서울시에서 개발협력 건설턴트 등 인력 해외파견 4) 해외 인프라사업에 공동참여(지분투자, 인력 등)	
02. 위에서 서울시에서 “무리없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가능성 높은 것 ①로) : ①____ ②____ ③____ ④____	
03. “서울시”가 국제도시협력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투입 과 무관하게)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는? (순서대로 중복기입 가능) ①____ ②____ ③____ ④____ 1) 여성,인권,빈곤 2) 환경,복지 3) 행정 거버넌스 4) 보건,의료 5) 상·하수도 6) 도시개발, 주택 7) 교통, 도로 8) 쓰레기행정제도	
04. 위 03에서 선택한 비교우위 분야의 원인은? (2개까지) ____ ____ 1) 서울시 가용예산이 많아서 2) 교통, 시설, 교육, 인재풀 등 지역여건이 좋아서 3) 서울시 행정제도나 우수한 행정인력 4)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하다 보니	
05. 도시인프라 분야 국제개발협력 인력공급 애로의 주 원인은? 1) 사전수요예측이 힘들 2)단기의 계약직 고용형태 3) 특정업무 적격자 요구 4)전문분야 외 언어, 개발마인드요구	
06. 도시인프라(도시건설,상하수도,교통 등) 국제협력요원의 바람직한 역할수준은 ? ☞ 순서대로 or 중복기입 가능 : ①____ ②____ ③____ 1) PMC, PM, 분야별 컨설턴트 2) 운영관리자 3) 개도국 공공기관협조업무 지원	
07. 도시인프라 국제협력요원의 직무자질(공통TOR) 중 주요한 것은? ☞ 순서대로 or 중복기입 가능 ①____ ②____ ③____ ④____ 1) 프로젝트 발주경험(단일공사, 복합공사), 사업기획, 국제입찰 2) 설계, 관리, 시공, 공정관리 3) 민원관리, 인허가 관리 4) 영어 및 현지언어	

질문 내용	자유의견 기술
<p>“서울의” 도시인프라 국제협력 전파를 위한 컨설턴트 요원의 역할을 하기에 적당한 직업군으로 다음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p> <p>☞ 교수, 연구원, 공무원, 민간기업체, NGO</p>	
<p>08. (현직)교수를 협력요원으로 할 때 장단점은?</p> <p>▶ 장점__ (1가지)</p> <p>1) 전문성 2) 언어능력 3) 개발협력사업 경험 4) 효율적 업무</p> <p>▶ 단점__ (2가지)</p> <p>1) 실무경험 부족 2) 책임성 부족 3) 전공분야 외 다분야 고려미흡</p> <p>4) 활동기간 단절(방학기간만 활동)</p>	
<p>09. (현직)연구원을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장단점은?</p> <p>▶ 장점__ (1가지)</p> <p>1) 전문성 2) 언어능력 3) 개발협력사업 경험 4) 효율적 업무</p> <p>▶ 단점__ __ (2가지)</p> <p>1) 실무경험 부족 2) 책임성 부족 3) 전공분야 외 다분야 고려미흡</p>	
<p>10. (현직)민간기업체직원을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장단점은?</p> <p>▶ 장점__ (1가지)</p> <p>1) 전문성 2) 언어능력 3) 개발협력사업 경험 4) 효율적 업무</p> <p>▶ 단점__ (2가지)</p> <p>1) 실무경험 부족 2) 책임성 부족 3) 전공분야 외 다분야 고려미흡</p> <p>4) 기간제 계약직으로 우수자 응모 희박</p>	
<p>11. (현직)공무원을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장단점은?</p> <p>▶ 장점__ (1가지)</p> <p>1) 전문성 2) 언어능력 3) 개발협력사업 경험 4) 개도국 공공기관 접촉</p> <p>▶ 단점__ (2가지)</p> <p>1) 실무경험 부족 2) 책임성 부족 3) 전공분야 외 다분야 고려미흡 4) 언어능력</p>	
<p>12. NGO활동가를 협력요원으로 했을 때 장단점은?</p> <p>▶ 장점__ (1가지)</p> <p>1) 언어능력 2) 개발협력 현지경험 3) 범분야 전문성</p> <p>▶ 단점__ (2가지)</p> <p>1) 실무경험 부족(인프라) 2) 책임성 부족 3) 우수응모자 확보 희박</p>	
<p>13. 서울시에서 재직공무원 대상 도시인프라 pool 구성 시 국제개발협력에 도움이 될 지와 그 사유?</p> <p>1) 도움된다 :</p> <p>가) 인재풀을 확대 나) 민간과 겹치지 않는 분야를 한다면 긍정적</p> <p>다) 취약한 도시인프라부분에 전문가 활용가능성 증대</p> <p>2) 안된다 :</p> <p>가) 분절화 가속화 나) 민간개인 참여기회 박탈</p>	

※ 해당 전공(관심)분야가 아니거나 잘 모를 경우 그 문항은 “모름” 이라고 기재 바랍니다.

2-1. 참여요원 사전확정여부

질문 내용	자유의견 기술
01. 브릿지프로그램 참여요원을 사업수요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하여 그 전 1년, 3년 또는 5년 전에 확정하고 구체적인 수요발생 시 매칭하여 인력을 투입하자는 입장 A (안) 프로그램 참여대상자를 사전에 확정하지 말고 자격제 등으로 관리만 하고 구체적인 수요발생 시 매칭으로 선발하자는 입장 B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입장과 그 사유는 ?	A, B 방식선호, 확정시기 의견 등
02. 사전결정자(A)는 나라.분야별로 안원을 2명~10명 정하여 전문 보직제(전문관등)로 인사관리 한다.	몇 명 정도, 전문보직 창설 찬반 등
03. 요원의 양성/지정후 활용방식은 ? 1) Pool 구성 후 현직근무 중 수요발생 시 “희망자” 매칭 2) Pool 구성 후 현직근무 중 수요발생 시 근무 중 “인사명령” 3) Pool 구성 후 공모연수기간 중 “희망자” 매칭 4) Pool 구성 후 휴직(퇴직)후 희망에 따라 매칭	

2-2 도시인프라 협력요원 (사내)자격인증제도 도입

질문 내용	찬반 등 자유기술
04. 사전에 대상자를 정하거나 별도 보직관리를 하지 않고 서울시 (사내)인증제도, 특화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의 도입으로 기술직 공무원 중심으로 스스로 준비를 유도한다.	
05. 인증 취득 시 등급을 구분하고 인사상 가점이나 우대가 필요하다.	

2-3. 선발후 대상자 관리제도

질문 내용	4,5,6 에 대해 단일, 복수 의견 및 구체적인 수치(나이, 수당액 등)
06. 해외장기연수(훈련)제도를 보완 활용하는 (안) ※ 50세, 53세 나이제한 완화, 의무복무조건 완화 또는 면제	
07. 공모연수(퇴직 1년전 연수제도) 제도를 보완활용하는 (안) (현직업무로부터 자유, 자가연수 등 대체)	
08. 민간기업휴직 등 휴직제도 활용안(현 국제기구파견휴직과 유사) (현재 해외개발협력사업 기업추가, 수당보전)	

※ 해당 전공(관심)분야가 아니거나 잘 모를 경우 그 문항은 “모름” 이라고 기재 바랍니다.

Ⅲ

요원 양성내용에 관한 의견

3-1. 언어 및 현지지역정보(문화, 제도 등)

질문 내용	찬반 등 자유기술
01. 영어성적(또는 제2국어)은 학원수강, 검증료를 지원하되 일반학원 미개설 언어강좌는 사이버강좌 및 강의를 별도로 한다.	
02. 해외글로벌체험 등 일정비율(30%)을 요원들에게 우선 부여하되 문화체험 위주에서 인프라사업(후보지)현장탐색 위주로 한다.	
03. 현지국가 사정은 인재개발원 과정개설, 시립대 개도국학생과의 교류, ASEAN센터 및 자가연수기회(교육점수인정 등)를 실시한다.	

3-2. 영문보고서 작성, 국제개발협력 교육

질문 내용	찬반 등 자유기술
04. 건설, 계약 등 영문보고서 작성교육은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인재원, 코이카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기회를 부여한다.	
05. 국제개발협력 교육은 사내교육인정제를 통해 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코이카 ODA교육원의 교육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	

※ 해당 전공(관심)분야가 아니거나 잘 모를 경우 그 문항은 “모름” 이라고 기재 바랍니다.

IV

유사제도와 차별성 및 연계방안

4-1. 중장기자문단(KOICA)과 연계, 차별성

※ 구상 중인 해외협력 브릿지프로그램은 공무원 퇴직을 전제로 하지 않고(휴직의 경우는 유사) 주로 도시 인프라 부문을 맡는다는 점, 인건비 부담주체를 서울시(원 소속기관)에서 하되 활동비, 체재비 등은 수원국, 민간기업, 협업기관에서 일부/전부 부담한다(案)는 점이 상이하다.

질 문 내 용	찬반 등 자유기술
01. 이 브릿지프로그램은 중장기자문단, 퇴직전문가(WFK)의 진입을 위한 브릿지프로그램 성격으로 전문가 풀 정도의 역할을 하고 두 제도의 선발 자체를 자동적으로 담보하지는 않도록 한다.	<중장기자문단(KOICA)에 대하여 모르시는 경우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2. 요원의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할 경우(후생부분은 제외) 늘어나는 중장기자문단 수요 중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방안	<중장기자문단(KOICA)에 대하여 모르시는 경우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3. 유·무상원조 프로그램으로 투입될 때는 중장기자문단 선발절차와 별개로 운영하되 해외의 개발현장에서의 후생, 편의지원사무(주거지알선, 보험)는 통합수행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자문단(KOICA)에 대하여 모르시는 경우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4. 요원의 직무는 컨설턴트 역할 외에도 업무량에 따라 해외에서 운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중장기자문단(KOICA)에 대하여 모르시는 경우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2. 퇴직전문가(NIPA)와 차별성

질 문 내 용	찬반 등 자유기술
05. 중장기자문단, 퇴직전문가(WFK)는 개인이 자기책임하에 역량을 보유하고 단지 선발과 파견교육만 하고 현장에 배치되나 이 브릿지프로그램(안)은 현직근무 중 사업발생 시 배치될 수 있다.	<퇴직전문가(NIPA) 제도에 대하여 모르시는 경우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6. 요원은 퇴직 전이므로 직위수요가 없으면 현장에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어 인력소모가 적다.	<퇴직전문가(NIPA) 제도에 대하여 모르시는 경우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3. 코이카, 수출입은행 전문가, 해외건설협회 인재 Pool과 차별성

질 문 내 용	찬반 등 자유기술
07. 타 기관 전문가, 컨설턴트 인재풀은 본인등록이고 사실여부가 불확실하며 등록후에도 공고 시 통지 외에 교육 등 관리 없음	
08. 해외건설협회 인재수급정보망은 위에서 지적한 것 외에 전문인력 수요자가 주로 민간기업임	

4-4. 수요발굴과 유·무상사업 연계

질 문 내 용	찬반 등 자유기술
09. 파견대상 사업수요의 발굴방식 1) 서울시 도시인프라 진출 연계사업(공동진출사업, 투자사업 등) 2) 무상ODA(코이카 등) 관련요청사업 3) EDCF(수출입은행)지원 확정사업 4) GIF, 시장개척전략사업(해진협)으로 확정된 사업 5) 개도국 및 국제기구 등 요청사업	
10. 요청에 의한 사업은 요청기관에서 활동비 등 부담방식에 대하여 (인건비 등은 서울시 부담)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심층인터뷰를 희망하시는 분은 의견이나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 _____ ▶ 이메일: _____ ▶ 연락처: _____)

(Seoul Institute Research Survey Questionnaire)

01. General status of Respondent

- Country and City :
 - Length of your Visit in Korea :
 - Age (Date of Birth, year) :
 - Place of work (Central/Local government, Institute) :
 - Work Period :
 - Tuition-paying Organization :
 - ☐ *your own expense, your agency, scholarship, govern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others ()*
 - The Size of Population (Your City) :
 - Visiting number in Korea :
 - Major(College) :
 - Department :
 - Type of Work : (General / Technical)
-

02. Your country's current conditions of administration

- 1) Is your mayor (or governor) elective or nominated? If it is elective, how many years is for the each term ? **(government personnel only)**

- 2) How many layers of ranks and number of persons are there for the high-ranking officials **who can be possibly nominated and recommended from the outside ?**
(government personnel only)

- 3) What level of high ranking officials would be forced to resign if the current mayor is stepped down ? **(government personnel only)**

- 4) Does your city have its own research institute ? Otherwise, does your regional college play the same research role for the city ?

- 5) Does your country (city, research institute) have current foreign officials and assign the native officials to cooperate with them who reside in your country (city, research institute) ?
 - ▶ If it does, how many countries and the number of persons are there ? And what kinds of roles(or tasks, ex> consultant) do they perform?

- ▶ Is the working place arranged for them to do their own jobs ?

- ▶ Which country burdens their activity costs, your country or their countries ?

03. Your interesting research subjects / fields in Korea

- 1) In what kinds of research subjects and fields are you interested ?

- 2) Please recommend the best practices such as regulations, research subjects which can be applicable and worth considering benchmarking to Korea ?

- 3) Which fields of Seoul below would you like to introduce for developing your country or city ?
 - ① City Planning ② Transportation ③ Maintenance of Public Security ④ Housing
 - ⑤ Water and Sewage ⑥ Waste Disposal ⑦ Culture and Tourism
 - ⑧ E-government (Computerized administration system) ⑨ Others()

04. Assistance and Benchmarking

- 1) Which one below do you think is the most necessary for assisting your country?
 - ① Planning ② Research and analysis ③ Public complaint dealing
 - ④ Construction management ⑤ Legal and system establishment
 - ⑥ Others ()

- 2) Which one is supposed to burden activity costs, your country(or institute) or the country (or city) of dispatch ?

- 3) What kinds of research fields do you think are most desirable when it comes to inviting consultants from Seoul, Korea ?